

# “무료개방 1전시실은 만남과 소통의 공간”

개막 한달 앞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전시 현장 첫 공개

‘팬데믹, 공동체, 지성, 위로, 소통.’

코로나 19로 두 차례 연기된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개막 한달여를 앞두고 전시 현장의 처음으로 공개했다.

전시 준비를 위해 2월부터 광주에 체류중인 공동예술감독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는 24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전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가 열린 전시실은 이번 비엔날레의 차별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기존에는 주제전의 첫번째 전시장으로 활용됐던 1전시실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처음으로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했다. 이곳에는 대표사와 함께 존 제라드, 아나 마리아 밀란의 영상 작품과 민정희, 문경일 등 8명의 작가 작품이 설치됐으며 관객들이 쉬 수 있는 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69 작가(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주 리서치 과정을 통해 신작이 40여점 선보이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또 작가들 뿐 아니라 과학자, 철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 40여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포럼 등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꾀했으며, 이 결과물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만날 수 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가들이 창의력을 보여줘 이번 전시를 진행할 수 있었다. 지난 2년 여간 코로나 19가 낳은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때로는 먼 곳에서 비엔날레 준비 과정에 신경을 쓰는 일은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한달여 앞둔 24일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 공동예술감독,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 상황 설명회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전시실에서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주제로 69작가(팀) 작품 전시  
“어려운 여건 신작 40점...팬데믹 상황 반영, 지성·민주화 다뤄”  
4월 1일~5월 9일 비엔날레 전시관·양림동·광주극장 등서 열려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그 자체로 영광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떤 작가는 직업을 잃기도 했고, 작업실이 없어져 버린 사람도 있는 등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다. 정식 개막일이 돼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광주 4개 전시장에서 열심히 준비한 작품을 공개하는 순간을 고대하고 있다.”(데프네 아야스)

두 사람은 몇차례 전시 일정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전시 작품 수, 주제, 전시컨셉 등 이번 전시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20여명의 작가들과 광주에서 두 차례 리서치 과정을 거치는 등 이미 준비가 되어진 상황이라서 큰 변화 없이 당초 의도대로 전시를 꾸렸다. 이번 전시는 진밀하고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려 했다. 당초부터 규모가 큰 전시를 기획하는 대신 출판, 온라인 저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기획을 진행했다. 위로와 사후 세계 등에 대해 다룬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에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것 같다. 또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전 세계의 연대와 움직임을 포착했고, 인간의 지성

뿐 아니라 AI 등 인공 지능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지성’에 대해 고민하는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번에 획기적으로 변신한 1전시실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비엔날레의 지속발전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전시장을 찾은 이들을 환영하는 공간으로, 세대간 벽을 허무는 소통의 장이 되면 좋겠다. 전시장이 중외공원 안에 있는데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젊은이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 나이든 어른 등 다양한 세대들이 전시를 통해 서로 어울리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번 비엔날레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 공간을 탐험하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두 사람이 기초적 문법을 풀어놓으면 작가가 해석을 해 작품을 풀어놓았다. 여기에 관객들이 또 다른 해석을 해 즐겁게 관람하길 바란다. 전시 뿐 아니라 출판, 포럼 영상 등도 연계해 관람하며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것도의

미었다. 또 안과 밖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민주적인 공간이 됐으면 한다. 전시 공간도 재할용 용품을 사용했고 벽도 최소화하는 등 환경문제에도 신경을 썼다.”

이번 전시에서는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전세계 움직임을 포착한 기획 등 다양한 주제로 펼쳐진 포럼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비엔날레는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는 공공프로그램, 특히 그 중에서도 GB토크 ‘수면으로 떠오르기: 연대의 미래를 실천하기’ 포럼에서는 14가지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페미니즘을 다룬 출판물 ‘뼈보다 단단한’(Stronger than Bone), 퍼블릭 프로그램 ‘라이브 오르간’ 등도 눈길을 끈다.

두 사람은 본전시관 이외에 광주 전역에 흩어진 전시장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국립광주박물관과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은 올해 처음 전시관으로 이용되며 광주극장 역시 기존 형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행진 : 저 문들을 지나’(The Procession: Through the Gates)에서 안무와 곡을 만든 ‘에이토스’ 팀의 드미트리 파리뉴시킨 & 쿠데스 작가 등도 참여했다. 이 작품은 영상으로 제작돼 전시 기간중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데프네 아야스와 나타샤 진발라 예술감독은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양림동  
마을 곳곳이  
예술 공간

‘제 1회 양림골목비엔날레’  
‘생명’ 주제...3월 3일~5월 9일  
3일, 이이남스튜디오 개관전·아트바자

광주 양림동에서 예술인과 상인, 주민이 함께 만드는 골목 미술제가 열린다.

오는 3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최되는 ‘제 1회 양림골목 비엔날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되어있는 양림동 상권에 예술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축제로 대면형 페스티벌이 아닌 ‘거리두기형 문화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양림동에서 거주, 활동하는 예술인과 문화기획자들의 협의체인 ‘양림미술관거리협의체’에서 기획한 양림골목비엔날레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와 협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생명’을 주제로 열리는 양림골목비엔날레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카페, 식당 등에 광주 예술인의 작품을 소규모로 전시, 마을 곳곳을 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전시 프로그램인 ‘기획전시-영입’은 마을 내 영입 중인 16개 이상의 카페, 식당이 참여해 13인의 예술인들의 작품을 점포 곳곳에 전시하게 된다. ‘기획전시-임대전’에서는 마을 내 빈 집과 빈 점포 2개소에서 골목 사진전 등을 개최한다. ‘주제전시-작가전’은 한희원, 최순임, 이이남 등 양림을 대표하는 작가 3인의 전시가 펼쳐진다.

3월 3일 오후 예정된 개막식은 ‘이이남스튜디오 개관전’, ‘광주시립발레단 초청 공연’ 등으로 꾸러지며, ‘제 1회 양림골목비엔날레 아트바자’가 별도로 열린다.

올해는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 양림미술관거리를 만나는 ‘도슨트 투어’ 등이 운영된다. 개막 주간에는 양림미술관거리 내에 위치한 작가들의 작업실, 갤러리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양림미술관거리 오픈 스튜디오’도 예정돼 있다.

한편, 제 13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는 4월 1일부터는 양림동에 위치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광주비엔날레 전시가 함께 열릴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10년후그라운드’(광주 남구 양촌길 1)에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며, 공식 홈페이지(https://alleybiennale.modoo.at) 및 블로그(https://blog.naver.com/yangnimstory)에서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070-4239-504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김창열 화백 ‘물방울’ 작품 10억4000만원에 낙찰 기록 경신

지난달 벌세한 한국 추상미술 거장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작품 가격이 경매 시장에서 치솟고 있다.

서울옥션은 23일 강남센터에서 열린 제159회 미술품 경매에서 김창열의 1977년작 ‘물방울’이 10억4000만원에 낙찰돼 작가 경매가 기록을 경신했다고 24일 밝혔다.

거친 마포 위 영롱한 물방울이 빛나는 이 작품의 추정가는 4억8000만~7억원이었으나 치열한 경합 끝에 낙찰가 10억원을 넘겼다.

김창열의 기존 경매 최고가 작품은 지난해 7월 케이옥션 경매에서 5억9000만원에 낙찰된 1980년작 ‘물방울 ENS8030’이다. 이번 경매에서 연대별로 출품된 김창열의 ‘물방울’ 8점이 모두 낙찰됐다.

/연합뉴스



‘물방울’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연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혁신상 수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서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